

해부학에서 세미나방식의 실습 활용 - 건국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송우철, 이범이, 고기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교실

간추림 : 최근에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 대내외적인 의과대학의 교육환경 변화로 의학교육 환경과 여건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는 기초의학이 줄어들고 대신 임상의학 및 사회의학 등의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의학의 시작이자 본격적인 의학의 입문인 맨눈해부학 역시 다른 과목과의 통합, 또는 각 계통별 과목으로의 분산, 그로 인한 수업 및 실습시간의 단축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교실에서는 일반적인 해부학실습 이외에 '해부세미나'라는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각 조에서 미리 해부하여 실습진도에 맞추어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형식이다.

해부세미나를 약 4년에 걸쳐 시행하면서 해마다 학생들로부터 설문을 받았다. 먼저 해부세미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객관식 형태로 물어본 결과 '재미도 있었고 해부학공부에 도움도 되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해부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느낀 본인 스스로의 태도에 대한 설문결과 '매우 적극적' 또는 '적극적'이라는 답변이 90%에 달했다. 해부세미나를 하면서 좋았던 점으로는 1) 그 분야에 대해 깊게 공부할 수 있었음, 2) 조원들끼리 협동심 함양 등이 있었다. 부족했던 점으로는 1) 시간 부족, 2) 주제가 불공평, 3) 조원 간의 마찰 순으로 많은 답변이 있었다.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는 1) 준비에 여유시간 필요, 2)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3) 다른 과목과 일정 고려 등의 응답을 받았다.

평가결과 해부세미나가 진행되면서 해마다 진보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실습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해부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게 된 점이 긍정적이었다.

(2009년 11월 24일 접수, 2009년 12월 10일 수정접수, 2009년 12월 14일 게재승인)

찾아보기 낱말 : 해부세미나, 해부학, 의학교육

서론

최근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등 외적인 요인과 각 대학별 자발적인 요구 등으로 국내 의학교육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로 기초의학 시간이 감소하고 임상의학 및 사회의학 등의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Meng 2007). 교육시간의 변

화 이외에도 고전적인 의학교육 과목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통합강의, 블럭강의 등이 많고 PBL(Problem-based learning), TBL(Team-based learning), e-learning 등의 방법들도 대학에 따라서 이미 도입되었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다(Kee와 Hong 2006, Han 등 2007, Kim 등 2008). 기초의학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맨눈해부학의 경우는 해부학 과목끼리 통합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 또는 각 계통별 통합과목으로 분산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는 수업 및 실습시간이 단축되고 있

*이 논문은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교신저자: 고기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교실)
전자우편: kskoh@kku.ac.kr

다(Hwang 2009).

건국대학교에서는 200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맨눈해부학은 발생학과 합쳐져 인체의 구조와 발생이라는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시간은 월, 수, 금 8시간, 주당 24시간씩 12주로 모두 288시간이다. 이 중에서 맨눈해부학은 약 264시간, 발생학이 24시간을 담당하고 맨눈해부학만 보면 강의는 약 74시간, 실습은 약 190시간 정도이다. 의과대학 시절의 교육시간은 강의 약 80시간, 실습 약 240시간으로 전문대학원 전환 이후에 전체적으로 약 4/5 정도로 줄어들었다. 건국대학교뿐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도 교육시간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2007년을 기준으로 의과대학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평균 강의 68.6시간, 실습 93.0시간을 담당하고(24개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의 경우에는 강의 71.8시간, 실습 82.2시간을 담당하고 있다(9개교)(Han 2007). 전체적으로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큰 차이는 아니지만 강의시간은 약간 늘고 실습시간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대학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건국대학교는 강의시간은 비슷하지만 실습시간이 2배 이상으로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을 교육하고 있는 편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의과대학을 유지하는 대학에서는 단순한 맨눈해부학 담당시간수의 변화뿐 아니라 교육방식에서의 변화도 요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영상의학이나 임상의학 강의를 맨눈해부학 강의 시간에 포함시키라는 것 등이다. 이에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교실에서는 실습방식에도 변화를 주고자 해부세미나라는 방법을 2006년부터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해부세미나의 운영방법, 학생실문결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대 상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

학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원은 40명이지만 의과대학 시절 유급이나 휴학으로 남아있던 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 유급생들이 포함되어 대상은 매년 40명을 약간 넘었다. 해부실습은 모두 여덟 조이며 일반적으로 40명이 약간 넘기 때문에 5명이나 6명이 한 조로 편성되었다.

2. 해부세미나 안내

해부세미나는 학생들이 해부학실습을 시작한 후 해부가 손에 익숙해질 즈음에 안내를 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부세미나 준비는 실습시간이 아닌 방과후나 주말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 1) 해부세미나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해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
- 2) 발표방법: 실습강의(약 10~15분), 해부결과 발표(약 15~20분).
- 3) 해부는 모든 조원이 참여해야 함.
- 4) 발표자의 수는 관계가 없으나 발표자를 포함하여 모든 조원은 구조에 관계된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 5) 발표일은 해부실습진도와 해부학교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해부세미나 평가

해부세미나에 대한 평가는 해부상태 50점, 발표 30점, 질문과 답변 2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정하였고 이를 안내시간에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다. 해부세미나 일정을 잡을 때 거의 모든 조가 나중에 발표하길 원하기 때문에 먼저 발표하는 조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첫째로 발표하는 조는 20점, 둘째로 발표하는 조는 15점을 추가로 주되 만점이 100점을 넘지는 않도록 하였다. 여기서 100점의 점수는 일반적인 필기시험을 100점으로 했을 때 60~70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필기시험 3번, 실습시험 2번, 그 외 몇 번의 쪽지 시험을 치르고 있다.

Table 1. Themes of dissection seminar in 2009

Theme	Date	Group
Popliteal fossa & leg	3.26	2
Ankle & foot	3.28	5
Nerves & vessels of neck	4.2	3
Nerves & vessels of face	4.11	4
Heart	4.21	7
Posterior mediastinum	4.25	1
Anterior abdominal wall	4.28	6
Posterior abdominal wall	5.7	8

4. 해부세미나 주제

해부세미나 주제는 학습량과 해부실습 진도, 그리고 다른 과목의 시험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발표일과 함께 여러 가지를 주고 각 조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주제 및 일정은 해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가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여 약간의 변동이 있다. Table 1은 2009년도의 경우이고 그동안 이 주제들 이외에도 손목과 손, 관자아래우목, 눈과 눈확, 골반 등의 주제가 추가되거나 빠지기도 하였다. 해부세미나의 발표는 해당 주제에 대한 강의 이후 그 부분에 대한 실습이 시작할 때 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표조는 일반적으로 강의 이전부터 미리 연습을 하여 해부세미나 준비를 하게 된다.

5. 설 문

인체의 구조와 발생 과목의 일정이 모두 끝난 뒤 학생들로부터 이 과목에 대한 설문을 받는데 여기에 해부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5문항 포함시켜 해부세미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결 과

1. 해부세미나의 진행

해부세미나는 시행초기에 비해 해가 갈수록 많이 발전하였다. 실습강의의 경우 초기에는 해부순서를

철판에 글을 써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철판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큰 그림을 미리 큰 종이에 그려와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후로 모형을 만들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도 하였다(Fig. 1A). 최근에는 실습실에 컴퓨터와 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하였는데 자신들이 해부하는 순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파워포인트파일로 만들어 발표하면서 보는 학생들로 하여금 쉽게 따라하도록 하는 등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해부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먼저 각 조에서 해부한 시신 앞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명하고 질문 및 토의를 하였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수 앞에서 발표한 후 해부세미나발표가 모두 끝나면 발표자는 각 조를 불러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돌아가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였다. 해부상태를 보면 세미나를 하지 않는 조에 비하여 훨씬 깨끗하고 정성껏 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B). 실습실에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된 이후 교수 앞에서 발표할 때 해부해 놓은 부분을 디지털캠코더로 동영상 촬영하며 텔레비전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촬영된 동영상은 다음 해 후배들이 해부세미나를 준비할 때 도움을 받도록 전해주었다.

2. 학생설문결과

2006년부터 4년 동안 학생들로부터 받은 설문결과로 객관식 형태의 설문 2개와 주관식 형태 3개로 이루어졌다.

1) 해부세미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Table 2)

해부세미나에 대해 학생들은 재미도 있었고 해부학공부에 도움도 되었다는 답변이 70.3%로 매우 높게 나왔고,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해부학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2) 해부세미나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Table 3)

해부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학생 스스로 평가한 본인의 태도는 적극적이었다는 답변이 90%에 육박하였다.



Fig. 1. Dissection seminar. Explanation dissection procedure by the demonstrator (A). An example of the dissection of posterior abdominal wall (B). Very fine dissection was accomplished.

3) 해부세미나를 통해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Fig. 2)
해부세미나를 통해 좋았던 점으로 ‘그 분야에 대해 공부를 깊게 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

었고 ‘조원끼리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었다’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한계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습능력이 향상되었다’, ‘해부학에 대한 흥미

Table 2. Questionnaire about dissection seminar No.1 (175 Answers)

Choose your opinion about dissection seminar?	Answer (%)
(1) Interested and helpful for studying anatomy	70.3
(2) Not interested but helpful for studying anatomy	16.0
(3) Interested but not helpful for studying anatomy	8.6
(4) Not interested and not helpful for studying anatomy	1.7
(5) I don't know	3.4

Table 3. Questionnaire about dissection seminar No.2 (175 Answers)

Choose your attitude toward dissection seminar?	Answer (%)
(1) Very positive	61.6
(2) Little positive	27.7
(3) Neutral	7.3
(4) Little negative	3.4
(5) Very negative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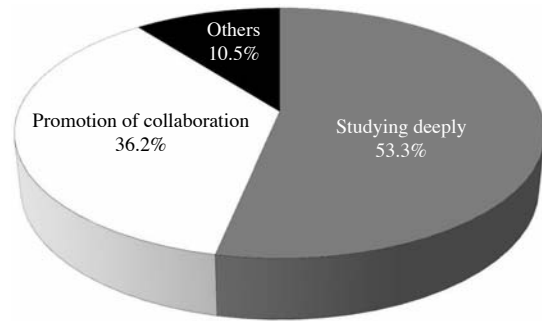


Fig. 2. The affirmatives during dissection semi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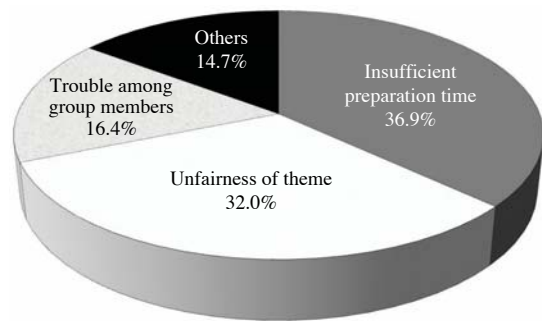


Fig. 3. Inconvenience or lack during dissection semin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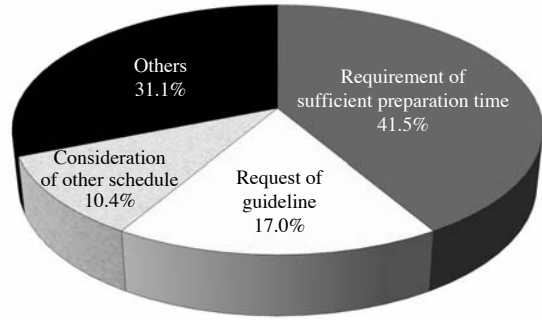


Fig. 4. Propositions for development of the dissection seminar.

를 느꼈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4) 해부세미나를 통해 아쉬웠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가? (Fig. 3)

해부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아쉽거나 부족했던 점으로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주제가 불공평했다', '조원 간의 마찰이 있었다'라는 응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기타의견으로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였다', '부담감과 아쉬움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등이 있었다.

5) 해부세미나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Fig. 4)

해부세미나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준비 시간에 여유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다른 일정을 고려해 달라'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타 '과열경쟁을 막아 달라', '주제의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 '구성원 간의 평가도도 반영해 달라'라는 의견도 있었다.

고 찰

건국대학교에서 해부세미나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의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교육시간이 감소하여 학생들의 해부학실습에 대한 학습량 감소에 따라 학습의욕이 줄어들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예과를 거치지 않아 같은 조라 할지라도 학생들끼리 서로 잘 모르고 어색한 반면 가까워질 기회

는 예전보다 훨씬 줄어 동료로서 유대감형성이 더딜 것이라는 것도 이유였다. 이런 이유로 시작한 해부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저자들이 내린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먼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의과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능동적이라는 것이다. 즉, 해가 갈수록 발표형식이나 방법이 진보하고 있었고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로 해부에 대해 잠시나마 깊게 관심을 갖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무리 대학을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처음 겪어보는 많은 수업과 방대한 학습량은 입학초기 깊이 새겼던 대단한 각오와 의지를 눌러 학생들은 시작한 지 한 달이 못되어 이내 지치고 만다.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학생들은 정해진 학습량 이외에는 더 이상 하려 하지 않는다. 해부실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실습지침서를 읽어보기 보다는 간단하게 몇 장으로 요약한 실습지침을 보고 별도의 지시가 있지 않는 한 그 이상으로 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점수 또는 학점과 관계된 각조에 주어진 해부세미나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학생들의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부세미나는 입학초기 또는 의학교육을 시작한 초기에 가까워질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찍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건국대학교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기초의학과정의 실습이나 임상실습을 할 때 소규모그룹으로 조편성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번순이나 이름순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학번순으로 하는 경우 유급생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름순의 조편성을 더 선호하게 된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1학년 초에 짜인 조는 보통 졸업할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소한 졸업하게 되는 순간까지는 같은 동료와 같은 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창기 유대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이 유대관계 형성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기회를 주는 해부세미나는 해부학교육 이외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해부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학생들의 실문결과에도 나왔듯이 다른 과목

의 시험 등이나 다른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부세미나를 안내할 때 미리 일정을 고려한 날짜를 정하였고 각 조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끔 했지만 이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해부세미나에 앞서 시험이 있는 경우는 해부세미나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학생실문결과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과목과의 일정이 중복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정확히 조사해 보지는 않았으나 해부세미나의 준비시간은 약 1주일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설문에 각 주제별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실제로 준비한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볼 계획이다.

다른 문제점으로 해부세미나 주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목의 혈관과 신경’이라는 주제는 ‘심장’이라는 주제에 비해 실제로 해부하고 공부해야 할 양이 많다. 그래서 목의 혈관과 신경이라 할지라도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나누어 어느 정도까지 해부하고 설명해야 하는지 적절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주제가 적절한 해부 및 학습량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점으로 ‘조원의 개별 평가도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조별로 담당하는 해부세미나이긴 하지만 어느 집단에도 그렇듯이 열심히 해부하고 준비하는 학생은 계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평가할지는 결정된 바 없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조원이 본인을 제외한 다른 조원을 자체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또 다른 소수의 ‘과열경쟁을 막아달라’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경쟁은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열경쟁은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습강의나 해부발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게끔 한다면 과열경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 전국대학교에서는 지금껏 진행해 왔던 해부세미나에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시도해 볼 계획인데 그 예로 1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PBL식 해부세미나가 있다. ‘목의 혈관과 신경’ 또는 ‘앞배벽’처럼 해부 부위별 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례를 주고 이를 해부학적으로 풀어나가며 해부세미나 형식으로 발표하는 PBL식 해부세미나를 도입해 볼 것이다.

전국대학교에서 몇 년간 성공적으로 진행한 해부세미나를 굳이 교육방식에 따라 분류해 보자면 의학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몇몇 사람들이 국내의 실정에 맞지 않고 검증된 바 없이 대단히 좋고 훌륭한 방법인 것처럼 주장하며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한번 해보라며 시도하는 TBL이라는 교육방식의 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름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TBL 또는 PBL과 같은 거창한 말을 쓰지 않더라도 새롭고 자율적인 교육방법을 자발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해부세미나라는 실습방법은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해부실습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경우나 학생수가 100명 이상으로 많은 경우는 주제선정이나 해부세미나 발표

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대학처럼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내외적 요구에 의해 해부학 교육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끌려 다니기보다 전통적인 교육방식에 바탕을 두되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의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해부학자들로 하여금 의학교육의 중심이 되는 데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Han HS, Lee R, Sohn IS, Lee JM, Lee KY : A study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perception of team-based learning during a medical dermatopathology lecture. Korean J Med Educ 19(3): 257-263, 2007. (in Korean)
- Han SH : The situation and prospect of the anatomic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of Korea. The 57th congress of Korean associations of anatomists [Abstract], pp 65, 2007. (in Korean)
- Hwang YI : The analysis of anatomic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 of Korea. The 59th congress of Korean associations of anatomists [Abstract], pp 53, 2009. (in Korean)
- Kee C, Hong KP : Perspective of e-learning in medical education. Korean J Med Educ 18(3): 221-224, 2006. (in Korean)
- Kim HY, Lee R, Lee JM, Cho HJ, Park KY : Student's evaluation of problem-based learning curriculum in medical school. Korean J Med Educ 20(3): 259-264, 2008. (in Korean)
- Meng KH : Teaching medical humanities in Korean medical schools: tasks and prospect. Korean J Med Educ 19(1): 5-11, 2007. (in Korean)

Abstract

The Application of the Dissection Seminar in Anatomical Practice

Wu-Chul Song, Beob-Yi Lee, Ki-Seok Koh

Department of Anatomy, School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Recently, in most medical schools of Korea, the educational method of gross anatomy, the first subject in medical education, has changed in several directions such as integrated lecture or problem-based learning (PBL). Therefore, the time of the lecture was constrained to reduce. The name of the gross anatomy integrated with embryology changed to 'human body and development' in Konkuk university since 2006.

In addition to the classical dissection practice, the 'dissection seminar' was introduced since 2006. It was a method of dissection practice that one group demonstrate the procedure of dissection and explains the structures of the pre-dissected cadaver to other students about the assigned subject.

The questionnaire about dissection seminar was performed after the anatomy course. The most common opinion about dissection seminar was 'interesting and helpful for studying anatomy'. The common answers about the attitude were 'very positive' and 'positive'. The affirmatives during dissection seminar were in depth study and improve in collaboration. The inconveniences or lacks were insufficient time to prepare, unfairness in difficulty between the subjects, and discord among group members. The propositions for development were requirement of sufficient preparation time, request of guideline, and consideration of other schedule.

As a result of self-estimation about dissection seminar, the direction of the dissection seminar have been advancing with time, and students became more interested in studying anatomy.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aintaining the dissection seminar is making proper plan such as avoidance of examination of another subject.

Key words : Dissection seminar, Anatomy, Medical education